

#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5월 15일 수요일 (주간)

제 369 호

불교는 행복을 주는 길입니다. 021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041)734-2680 대원본인사연선문수정리

## “여성불자들이 달라지고 있다” 수행·공부하는 풍토 확산

선방·불교대 수강자 2~3년새 10~50% 늘어  
불교중심체로 자리잡아... 지원·교육 강화

여성불자들이 달라지고 있다. 전국 사찰의 시민선방과 교양대학에는 수행과 공부하는 여성불자들이 넘쳐나고, 봉사 등 사회활동 참여도 확산되고 있다. 기복적이고 소극적인 신행에 머물던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렇듯 불교계의 다수를 점하는 여성불자들의 의식과 신행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성불자들의 원력과 잠재적 힘을 효율적으로 결집시켜 불교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토록 하는 체계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이달 초 본지가 전국 사찰의 시민선방과 불교대학 각 30곳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시민선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불자 2,707명 중 여성불자는 73.6%인 1,989명, 불교대학은 전체학생 8,849명 중 66.3%인 5,866명이 여성불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선방과 불교대 모두 여성불자 수가 최근 2~3년새 10~50%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등록

된 자원봉사자 440여명 가운데 여성 불자는 410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불자들의 수행과 경전공부 모임, 봉사활동 동아리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등 비범적인 신행풍토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불자들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차마불교’에 그쳐 있다. 본지가 여성불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한 최담회(최담회)를 통해 불교계와 여성불자들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차마불교’에 그쳐 있다. 본지가 여성불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한 최담회(최담회)를 통해 불교계와 여성불자들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차마불교’에 그쳐 있다.

불교계 및 여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우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불교계에 뿌리박혀 있는 여성 비하 풍조를 개선하고, 여성불자들의 의견이 사찰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기구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중단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신행활동과 사회 활동을 연계시키기 위한 교육 강화도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한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원장은 “변화하는 여성불자들의 욕구를 수렴할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info.com

## “마음속 살아있는 여래 보라”

법전스님 등 각 종단 중정 봉축 법어

조계종 중정 법전스님을 비롯 태고종 덕암, 천태종 도용스님과 진각종 해일 총인은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 법어를 통해 자신의 마음속 부처 성품을 일깨우도록 정진하기를 당부했다. 법전스님은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여래를 보아라”며 “우리 곁에 있는 중생이 살아있는 부처”라고 말했다.

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며 “무염정정하면 그곳이 불국토”라고 말했다. 천태종 중정 도용스님은 “진실한 불자로 거듭날 때 부처님오신날의 등불이 환히 밝히진다”고 했으며, 해일 진각종 총인은 “진정한 행복은 자성 부처님을 믿고 마음을 밝혀나갈 때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태고종 중정 덕암스님도 “마음과 부

김원우 기자 www@buddhainfo.com

**법어 초대 대정 스님 부산 법어사 선덕**

“부처님이 오신 뜻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부터 100%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의심자체를 일념으로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결국 한마음이 되어 진짜 공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21면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외국인노동자에게도 가피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계가 외국인 노동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를 잇달아 마련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경북련 등 불교NGO들은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지속적인 외국인 노동자 돕기 운동에 나섰다. 참여불교재가연대를 비롯한 종교NGO네트워크는 26일 경기도 파주 스리랑카 근면불교 자비도량에서 불교·천주교·가신교 종교인들이 모여 외국

대한 일반의 관심을 일깨웠다. 7일 창립된 한-미얀마 친선 교류위원회는 한-미얀마 친선교류 증진과 미얀마 노동자를 위해 미얀마에 2300여명 부지의 무료 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고 협회 산하에 직업연행사를 세워 미얀마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노동자를 위해 한글 교육 등 인권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 외국인노동자회집은 19일 ‘민간 물축제’ 개최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서울 미얀마 선원의 외국인 노동자들도 12일 연등축제에 참가했으며 서울 보리수선원은 19일 미얀마 고승 우야니파라 스님(시계구불교대 총장)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구미 남화사 외국인근로자센터는 12



일 노동자를 위한 기도회, 무료 진료 및 부아 봉사 등 행사를 갖는다. 이들 종교인들은 앞으로 컴퓨터, 한국어 교육 등 지속적인 외국인 노동자 후원 사업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

경북련은 1~2일 중앙승가대와 함께 ‘외국인노동자에게 부처님의 자비!’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데 이어 12일 연등축제에서 네팔불자들의 전통을 공연 행사를 가져 외국인 노동자에

관심과 사랑을 보였다. 한국음식 나누기 행사 등 개최해 외국인노동자들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승기 사무국장은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회성 행사 아닌 교육, 의료 사업 등 보다 장기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신(취재1부 기자)



‘월드컵 성공기원’ 축구공 연등 물결. 12일 15만여 불자들은 화려한 정음등을 앞세운 가운데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부처님 마음으로 온세상에 자비와 평화가 넘쳐나길 기원하며 제등 행진했다. 일반시민들과 외국인관광객들도 대거 참여한 이번 연등축제에는 특히 월드컵 성공을 기원하는 2002개 축구공 연등이 물결을 이뤄 눈길을 끌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 연등축제 15만명...나투신 뜻기려

부산대구 등 전국 60여 도시서 봉축행사

2546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12일 우정국로와 동대문운동장, 종로거리에서 연인원 15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7시까지 동대문운동장에서 식전 공연과 연희패 놀이, 연등축제 상징캐막(구름), 연등법회로 진행된 <어울림마당>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 태고 천태 진각종 등 26개 종단 총무원장과 100여 사찰의 스님과 신도 등 6만여명이 동참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했다.

법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전통 등과 월드컵 참가국기, 축구공등의

장엄물을 앞세우고 동대문운동장을 출발하여 조계사까지 제등행진했다.

제등행진 후 오후 9시부터 우정국로에서 풍물패가 흥을 돋우는 가운데 일반시민과 외국인, 행진참가자가 한데 어울리는 기원동놀이, 강강술래 등 대동한마당을 펼쳤다.

이에 앞서 봉축위원회는 정오부터 저녁 10시까지 법패 외국인 등 만들기, 다도체험, 단청 및 불화, 선무도 등 50여개의 각종 행사를 마련해 축제를 위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등 전국 60여 도시에서도 11,

12일 연등축제와 제등행진을 봉행했다. 김원우 기자

“부처님전 조국통일 서원” 남북불교계 공동발원문 채택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와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은 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기 2546년 봉축 및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계 공동발원문’을 공동 채택하고, 5월 19일 남과 북의 모든 사찰에서 봉독하기로 합의했다. 『발원문 전문 2면 김원우 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부처님 일대기

1. 불자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자세히 안다 ②대강 안다 ③잘 모른다.

2. 부처님 일대기를 읽었다면 어느 대목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까?  
①탄생 ②사문유관 ③출가 ④수하량마 ⑤성불 ⑥초전법륜 ⑦열반

설문 참여: 5월 16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와 현대불교 370호 35면에 실립니다.

**부처님 오신날 특집... 총 72면 발행**

이번 주 369호 36면 발행

한국여성불교의 오늘과 내일	3면
좌담: '보살의 힘' 불교발전 원동력	3면
수행·공부하는 여성 늘고 있다	4면
지역 여성불자모임·불교와 페미니즘	5면
노무현·이회창 대통령후보 종교정책	7면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	9면
해외의 부처님오신날 진풍경	15면
시방세계: 한국에서 출가한 외국인 스님들	17면
화보 '연등축제 이모저모'	18·19면
불교학살집단체 이후 과제	24면
'우리 이렇게 초파일 맞아요'	31면

다음 주 370호 36면 발행

도법스님 특별대담 '한국불교를 말한다'  
무엇이 한국불교 정체성인가.  
한국불교, 변화해야 한다.  
각계각층 불자의 '부처님오신날에 쓰는 발원문'  
되살아나는 인도불교  
탄종교인들의 '내가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  
주한 외교사절 템플스테이 체험현장  
새 기획연재: 108 사찰 생태기행  
화보 '천년의 미소로 오신 부처님'  
IT업계를 뛰는 불자CEO  
새싹불자와 함께 읽는 봉축동화

**KBS '체험 삶의 현장' 방영**

청동 주물기와 600여년만에 복원 성공

2002년 5월 19일(일요일) 아침 9시 KBS 1TV 방영  
청동 주물기와 제작·시공 전과정 생생히 공개

주요시공내역

1995년 3월	경남 함안 인씨문중 재작 시공
1995년 10월	서울 삼익산 삼익사, 대웅전 시공
1996년 3월	부산 법어사(창원암) 대웅전 시공
1996년 5월	LG그룹 주씨문중재작 시공
1997년 5월	정통 영지사 대웅전 시공
1997년 3월	경남 양산 법수원 시공
1997년 5월	인천 문수암 시공
1998년 8월	서울 신계동 선각사 시공
1998년 11월	인천 화림선원 시공
1998년 11월	삼익산 오색석사 시공
1999년 4월	영양 계은 동천사 시공
1999년 6월	신강 선법사 시공
2000년 8월	오봉산 석굴암 시공
2000년 10월	현리 백련사 시공
2001년 4월	윤신동대 시공
2001년 10월	경주 감포동대 시공
2001년 5월	오봉산 석굴암 시공

그외 다수 시공중  
실용선인 9119053호 모방할 수 없습니다.

ISO9002인증업체  
**주신공영(주)**  
경기도 하남시 초월동 145  
TEL | 031-793-4255  
FAX | 031-795-3200  
인터넷주소 | http://www.jooghin.co.kr  
E-mail 주소 | jooghin@jooghin.co.kr